

“깊이 있는 접근으로 책의 가치 높여겠다”

〈TV, 책을 말하다〉의 황용호 프로듀서

책을 외면해오던 텔레비전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책을 말하기 시작했다. KBS 제1TV는 지난 5월 3일부터 본격 책 프로그램 〈TV, 책을 말하다〉를 선보였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50분간 안방으로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은 수목드라마가 방영되는 황금시간대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첫회에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한길사)를 집중 조명했다. 네명의 PD가 번갈아서 연출하며, 전체 진행은 서울대 신문학과 정명진 교수가 맡는다. 이 프로그램의 실무 책임을 맡은 황용호 차장(40)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본격 책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책 관련 프로그램은 공영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지금까지는 외각시 간대에 배치되거나 생겼다 없어지는 부침을 겪어왔다. 이제는 구색용이 아니라 제대로 해보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황금시간대에 본격 책 프로그램이 편성된 것은 방송사상 처음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꾸며지는가.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처음 40분간은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한권의 책을 선정,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집중 조명한다. 나머지 10분은 베스트셀러나 화제의 책을 소개하고 한주간 출판가 동향도 짚는다.”

— 기존의 책 관련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

“기존의 책 프로그램이 평면적인 책 소개에 그쳤다면, 이 프로그램은 책



기획회의를 하고 있는 〈TV, 책을 말하다〉 팀. 왼쪽부터 강현석 차장, 이영준 PD, 황용호 차장, 오진상 PD.

자체를 입체적으로 취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책의 내용에 따라 취재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첫회에 방영된 《로마인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 요청되는 ‘지도자의 리더십’이란 주제를 부각시켰다.”

— 정적 매체인 책을 동적 매체인 텔레비전으로 풀어내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이 프로그램의 관건은 정보의 깊이와 질이다. 깊이 있는 정보를 다양한 장치로 이야기한다면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소개될 책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두가지 선정원칙을 세웠다. 현재 독자들에게 관심을 끄는 책,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의미 있는 책이 그것으로, 두가지 요소만 충족된다면 장르와 국내의 저자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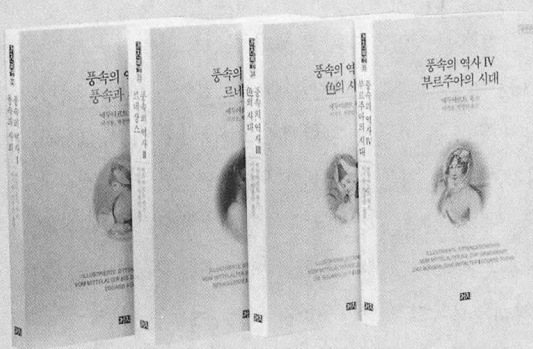
— 이 프로그램이 우리 출판문화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리라고 보는가.

“독자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게 ‘유혹’하고 책 만드는 사람을 격려하고 싶다. 궁극적으로는 책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 박천홍 기자

까치, 〈풍속의 역사〉 시리즈 개역 제2판 펴내

개정 맞춤법 적용하고 도판 추가해



에 두 아 르 트 폭스의 기념 비적인 저작 《풍속의 역사 (전4권)》(이 기용 외, 까치)의 개역 제2판이 출간됐다. 음서라는 이유로 히틀러에 의해 불살라지는 비운을 맞기도 했던 이 책은 복장, 연애, 결혼, 사교생활 등 인류가 만들어낸 종교와 사회제도 등이 성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성의 표출은 그 사회의 경제적인 힘에 지배되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1988년 당시 출간된 초판본은 일본어판 《風俗の歴史》(安田徳太郎, 光文

社)를 증역한 것이었다. 번역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독일에서 전질 복사판을 구하게 돼, 번역한 원고를 독일어 원서와 다시 맞춰 패러그래프를 정리하고 인명과 지명, 그리고 용어를 원서와 대조하는 등의 작업을 거치느라 2년여의 시간을 소비하기도 했다.

이번에 출판된 개역판은, 현재의 맞춤법과 외국어 표기법 등을 적용해 문장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번역의 진위가 미심쩍은 부분은 원문과 대조해 상이하게 번역된 단어들을 통일했으며 이전 판에서 쓸 수 없었던 도판들을 새롭게 추가했다.

서혜정 편집장은 “적당한 번역자가 나타나면 독일어 원본과 대조해 다시 개역 제3판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갑수 기자